

##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통해 발전가능성 확인

### 고객만족 포장용기 개발 할 터

오직 아이디어와 기술력, 개발제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회사를 창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위험감수가 높고 실패 확률도 높다.

자본이나 지원 없이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난 2002년 말 회사를 설립, 2003년 3월 대각선 지퍼팩 개발 성공으로 현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주)뉴팩코리아(대표이사 송춘홍)를 찾았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공장에 불과 4명의 직원으로만 구성된 뉴팩코리아는 현재 리필용팩(대각선 지퍼팩)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개발, 양산체제를 갖추고 삼양사의 '큐원' 대각선 지퍼팩 납품계약을 체결한 '알짜배기' 기업이다.

(주)뉴팩코리아가 야심있게 개발한 대각선 지퍼팩은 포장지 모서리부분에 대각선으로 지퍼팩을 삽입한 기술로 포장지에 기능성과 편리성을 첨가한 제품이다.

여러 가지 공업용 및 식품용 포장용기로 분말가루의 분량 조절이 편하고 습기차단이 용이해 내용물이 굳거나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관시에 지퍼로 잠궈 내용물이 쏟아져거나 이물질, 벌레 등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생산공정에서 충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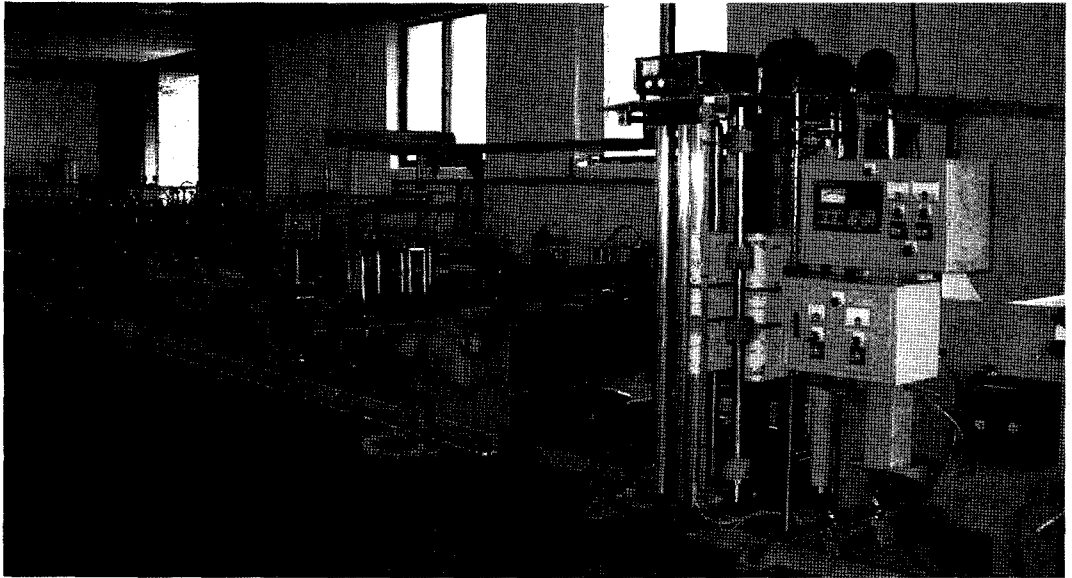
공정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임으로써 생산량을 높여 원가 절감했을 뿐 아니라 대각선 지퍼가 짧게 되어 있어 쉽게 잠글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발된 대각선 지퍼팩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분말가루에 적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개사료 등에 사용되고 있어 대각선 지퍼팩의 활성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업계에서 포장용기로 아이디어 제품을 특허로 내놓



▲ (주)뉴팩코리아가 개발한 '대각선 지퍼팩'



▲ 대각선 지퍼팩을 생산하는 (주)뉴팩코리아의 제조설비

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히는 송 사장은 “제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81년 포장업계에 처음 종사하게 된 송 사장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를 창립하여 기술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송 사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경쟁력이 없다”며 “포장업계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업체나 인재들에 대해 관련단체나 협회에서는 투자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뉴팩코리아는 처음 회사를 창립할 당시 기술 개발을 위한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투자를 요청했지만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었다.

“그때 당시 자본없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출발하여 회사에 자본을 끌어드리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끝

까지 해보겠다는 신념아래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위기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송 사장의 확실한 주관과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 뉴팩코리아는 꾸준한 영업마케팅을 통해 마침내 삼양사와의 설탕포장지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처음 여러 업체에 대각선 지퍼팩을 소개할 당시 타납품업체들의 견제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시장을 뚫기란 여간 힘들일이 아니었다”고 회상한 송 사장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포기

# New Pack



▲ (주)뉴팩코리아 2004 코리아팩 참가 모습

하지 않고 제품홍보를 한 결과 대각선 지퍼팩의 기능성을 일찍감치 수용한 삼양사에서 먼저 납품희망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삼양사의 대각선 지퍼팩 '큐원' 설탕 출시로 인해 제품의 활성화에 성공한 뉴팩코리아는 지난 해와 올해, 코리아팩 전시회에 참가해 외국바이어 및 국내바이어에게 많은 관심과 제품 납품계약의 성과를 얻

었다.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송사장은 "앞으로 고객만족을 꾀하는 제품개발을 통해 성공을 이뤄 사회에 환원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포장업계는 외국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아이디어 제품 개발 및 기술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격경쟁력으로는 더이상 포장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뉴팩코리아는 포장업계에서는 최초로 코스닥 등록을 목표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체계를 다지고 있다.

또한 대각선 지퍼팩의 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유통망을 정비하고 세계화에 발맞춰 기술력 있는 제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송춘홍 사장.

거듭된 좌절과 실패속에서 겪은 그의 값진 경험들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규모는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뉴팩코리아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K]

이한열 기자